

T V

TV 8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나에게 꼭 맞는 배역 만났다”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청군 대장 ‘쥬신타’ 役 류승룡

눈빛이 강렬한 배우 류승룡이 자신에게 꼭 맞는 배역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10일 개봉 예정인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청군 대장 ‘쥬신타’ 역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이 역할을 다른 배우가 했을 경우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만주에서 온 쥬신타로 보였다. 최근 언론과 만난 그는 이런 연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쥬신타란 인물이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대사가 없으면 관객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만 남겨두고 대사를 가능한 빼자고 했죠. 간결하고 명확한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보통 배우들이 대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였죠(웃음).” 이렇게 배역에 대한 애착이 컸지만, 그는 처음에 조금 망설였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평양성’ 후반 작업

할 때쯤 이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사극을 또 한다는 게 부담도 됐고 외국인 역할도 부담스러워서 잠깐 고민했죠. 적잖이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출연을 결심하고 나서는 영화 속 쥬신타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우선 청나라 사람처럼 변발을 하기 위해 머리의 앞부분 절반을 깎고 뒷머리만 남겼다. 또 극중에서 그는 청나라 장군이기에 때문에 출연배우들 중 만주어를 가장 열심히 배워야 했다. 이렇게 노력한 만큼, 그는 완성된 작품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그가 올 여름 보여준 카리스마 연기는 ‘최종병기 활’에서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개봉한 장훈 감독의 대작 ‘고지전’에서도 인민군 대장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그는 이 두 영화에서 모두 대장 역할을 했고 이전부터 TV 드라마 ‘벌스군’을 비롯해 리더나 보스 역할



을 많이 했다. 실제 성격은 어떨까. “실제로도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반장을 많이 했고 지금도 늘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제작년부터 빨리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런 것만 들어오네요. 하하. 그냥 들어오는 대로 겸허하게 하고 싶어요. 시나리오가 좋으면 어떤 캐릭터라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싶어요. 그래도 나중에 돌아보면, 블랙코미디가 좋아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비극적이지만 따뜻한 웃음을 주는 그런 영화에 좋은 기운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제20회 광주전남직장비육대회 무모한 강수 1회전 2국 5보(73~93) 백 이도연 5단 흑 허우석 5단 (포스코) (광주시청)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commentary.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8일(음 7월 9일 乙未) 운세 forecast for various zodiac signs including Rabbit, Snake, Horse, etc.

광주 지역 광고 including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나하오 풍구위', and '오하오우 니혼고'.